

영화 「까루나」

오백나한 조성에 통일염원 담아



◇ 청자 5백나한 조성에 통일 염원을 담는 영화가 나온다. 사진은 영천 은해사 거조입에 모셔진 5백나한상.

도공 가족사 통해 분단의 상처 그려

이일목감독, 신년초부터 촬영 돌입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고려청자 5백나한상을 조성하는 도공 3대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시라소니」 「취모리」를 만든 이일목감독이 최근 시나리오를 탈고하고 제작사와 출연진 교섭에 분주한 이 영화의 제목은 「까루나」.

동해 등명 나가사에 70년대에 유근형씨가 조성한 청자 5백나한상을 보고 작품의 소재를 얻은 이일목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통일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접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영화는 전북 부안의 유촌리에 자리한 한 도공의 집에서 시작된다. 때는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낚시터를 모두 징발해 간 후 사기그릇을 대량으로 구워내려고 성화를 부리는 시기이다.



◇이일목감독

는 대대로 물려 받은 청자 제조법을 버리고 사기그릇을 구울 수 없다고 버티며 일제에 맞서 싸웠다.

다시 이야기는 6.25 전쟁으로 옮겨진다. 전쟁의 만파지 어는 때에 유촌리에 빨치산이 나타난다.

본담이를 차지했던 종길은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아이를 뱀 본담이와 가마터에 숨어 있다가 형과 부딪힌다.

이같은 내용의 영화를 기획한 이 감독은 「영화 「까루나」는 민족의 한일 통일을 위해 만든 것이며 그를 위해 부처님 가피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역시 빨치산의 의심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본담이는 양천수에게 갓난 아들을 넘겨주고 마을을 떠나 버린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70년대로 옮겨진다. 본담이의 아들이자 양천수의 손자인 진형이(※ 이병헌)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 애인 미란과 합아버지의 가마에 졸업작품을 빚으러 내려 온다.

그때 미란의 부모가 종길부친의 빨치산 행적을 알고 딸을 데리러 온다.

결국 진형과 심정병이 절린 지속은 가마에 몸을 던져 육신을 태우므로 5백나한상이 조성되고 그 집안식을 하는 날 남북의 통일이 이뤄진다.

이같은 내용의 영화를 기획한 이 감독은 「영화 「까루나」는 민족의 한일 통일을 위해 만든 것이며 그를 위해 부처님 가피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범패 구전선율을 악보로 펴내

범현스님 영산재 구성·신앙적의미 상세히 밝혀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영산재(靈山齋)의 구성과 신앙적 의의를 밝힌 논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범현스님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영산재의 구성과 신앙적의의에 관한 연구」가 그것. 그동안 영산재에 대한 연구는 흥운식(동국대) 한만경(서울대) 교수 등이 해 왔으나 직접 영산재를 전수받아 시연하고 있는 스님에 의해 연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범현스님은 논문의 부록으로 8간 구음으로 전수되어 온 범패의 가락을 독특한 악보로 표기해 주목되고 있다.

스님이 만든 악보는 서양의 오음보나 국악보의 전 형인 정간보 등의 형식이 아닌 소리의 흐름과 높낮이를 선과 글자표기법으로 독특하게 나타내며 영산재의 구성과 의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영산재에 쓰이는 범패선율이 악보로 만들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시전은 지난 8일 열린 태고종의 국가재난 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후회에서 시연된 영산재 중 비라춤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리의 높낮이와 밀고 당기는 기교, 연음으로 미끄러지는 흐름 등을 표기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산재 악보로 표기된 범패의 음표는 최근까지 시연되고 있는 각종 영산재에서 현존하는 어장(魚丈)인 송암스님, 벽음스님, 운공스님 등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 그것을 기초로



◇범현스님



◇영산재에 쓰이는 범패선율이 악보로 만들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시전은 지난 8일 열린 태고종의 국가재난 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후회에서 시연된 영산재 중 비라춤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리의 높낮이와 밀고 당기는 기교, 연음으로 미끄러지는 흐름 등을 표기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악보화했다. 「범패의 연원은 우리나라 불교전래와 거의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라때에도 범패는 흥성했으며 고려때에는 국가 차원의 제 행사가 많았다는 기록이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과 일제를 거치며 범패의 맥은 거의 단절 위기에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범원사를 중심으로 큰스님들이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이제 범패를 배우려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통불교 의식의 맥이 끊어질 위기가 아쉽지만 이 논문이 발표되면 범패의 실용적인 정립을 절실히 느낀다는 스님은 「아직 손도 못뿔 부분이 허다합니다. 제가 시도한 악보작업도 절대적인 음가의 표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라며 계속적인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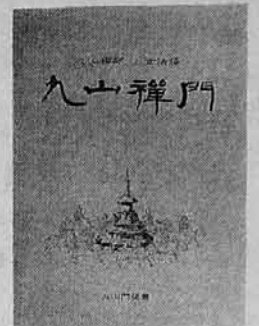
또 비라춤, 나비춤, 작법 등의 동작이나 그와 함께 연주되는 사물의 소리에 대한 음표의 수, 재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연구 등 영산재를 둘러싼 연구분야는 엄청나게 넓다는 것이 범현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나 영산재와 관련한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 재가 포함하고 있는 신앙적 의미 등은 기존의 자료가 빈약한 상황에서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집성했다는 것이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의 평이다.

〈임연태 기자〉



◇구산스님



구산스님의 상당법문을 묶은 「구산선문」이 지난 15일 스님 열반 11주기에 맞춰 발간됐다. 이 법문집에는 구산스님이 조계총림을 개설한 1969년 4월 15일(음력) 81년째 결계부터 83년 동안 거결계까지 15년 동안 송

행하고 주창하셨던 수선법문과 스님의 법호를 뜻하는 것으로 구산선사의 수선법문을 줄인 말이다. 편찬위원장 현호스님은 「구산스님은 생전에 「현정승보」를 양성하여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것을 염원하셨고, 전세계 각지에 사찰을 세워 한국불교를 널리 선양하셨다. 「구산스님의 육성이 담긴 이 법어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법문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15년간의 칼날같은 법어 생생 구산스님 상당법문집 나와

광사 총림대중을 위해 설한 상당법어가 실려 있다. 이 법어를 스님이 손수 초록한 원고를 바탕으로 엮은 것으로, 의미를 살필 수 있도록 한글로 풀이하였고, 한문으로 된 원문을 그대로 실어 참조토록 했다.

법문집 발간에 즈음해 조계총림 월하스님은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관찰하여 지혜의 칼날이 더욱 더 날카롭게 되고, 뜻세워 잠은 자리가 더욱 굳건하게 되면 가히 미세한 법박을 탐진하고 무자(無字)의 법인을

불심시심

산처럼 뜻을 세우다

覺性無迷亦無悟 (각성무미역무우) 깨달음의 본성에 미(迷)도 없고 오(悟)도 없으니 不離當處豁然開 (블리당처활연개) 당처를 놓치지 않으면 활연히 열린다 於斯更欲求玄妙 (어사경유구현묘) 이에 다시 현묘한 것으려 하면 劫劫無能攝法雷 (검검무능섭법뢰) 무한 시간에 법의 우뢰 울리지 못하랴

이 시는 나옹화상(懶翁和尚)이 계승을 요구하는 제자 뇌선(雷善)에게 준 시이다. 깨달음의 본성에 원래 어리석음이나 깨우침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에 더욱 매달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기에 끝내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깨달음도 흥연한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 또한 지혜로움으로 구하는 수련의 과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점점 수련의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는 점수(漸修)가 필요하다.

그러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바로 당해의 핵심적 당체를 알지 못하면 그 또한 어리석음의 해매임이니, 이 당체인 그 곳을 제대로 찾고, 찾았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진이 있어야 깨달음의 길로 들 것이고, 이 정진의 결실이 활연한 열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중찬(동대교수)

신라 마애불상군 발견

경주남산서... 6세기 조성 추정

경주시 배반동 남산 동쪽 탑골원대에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시대 대규모 석굴 마애불상군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최병문씨가 발견해 신고한 이 마애조상군은 가로 7.5m 세로 3.9m 높이 4.1m 규모의 자연석 암벽면에 높이 2.9m의 5층 목탑 1기를 비롯, 좌우에 불상 8구 스님상 1구 등이 선각돼 있으나 마모가 심해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발견된 탑골 마애불상군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근의 부처바위

마애불상군보다 앞선 서기 6백 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 답사를 한 신장수 문화재 연구실장은 「보물급 석조유물로 평가되나 전면적인 탐사와 정밀조사를 한 후야 정확히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통도사·내원사 등 소개 양산군 교육용 비디오 제작

양산군 교육청이 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양산지역의 역사, 관광명소 등을 담은 비디오를 만들어 국·중학교 각급 학교에 보급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로의 열단」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비디오에는 이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자 사찰인 통도사 내원사가 소개되고 있다.

분청도에 진수보여 장금정씨 서울전

불자 도예가 장금정씨의 「꽃핀 눈박이 사발전」이 14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운현궁 미술관에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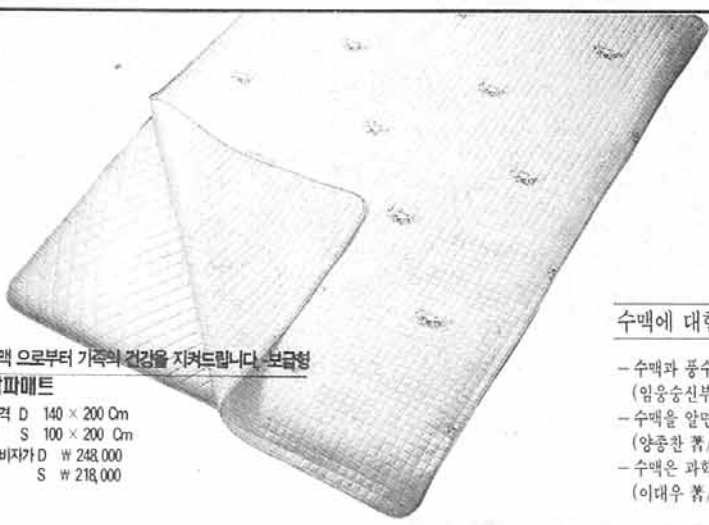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 장씨는 분청으로 빚은 다기류와 사발 토우등을 내놓았다. 장씨의 전시에는 운무송씨와 공동 제작한 작품도 다수 출품됐다.

장금정씨는 경남 하동의 새마을 가마(경남도문화재24호)에서 도예작품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질병의 큰 원인은 "수맥"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방지용 건강매트 - 알파매트

수맥을 무료로 봐드립니다. 부담없이 불러주십시오. 수맥파를 방지하시면 하시는 일의 능률도 상승됩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수험생, 임산부, 환자들은 꼭 수맥을 방지하십시오.



수맥에 대한 관련서적

- 수맥과 풍수 (임용승신부 펴냄/새남출판)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양승환 펴냄/대광출판)
-수맥은 과학이다 (이태우 펴냄/대광출판)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전 3-7-5664

遠赤外線 線狀發熱體 使用

자매품

VIP 골드세트 수맥차단 원적외선 효과 음이온 발생 소비자가 ₩ 1,310,000 규격 140 x 200cm

골드카펫 수맥차단 원적외선 효과 음이온 발생 자카드 원단 소비자가 ₩ 765,000 규격 150 x 220cm

엔젤랜드 수맥차단 소비자가 ₩ 148,000 규격 100 x 120cm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

- 모집지역 전국 (시, 군, 구, 읍 단위)
●대리점 자격 보증금 없음 초도상품대 가능자(무점포 가능)
●특약점 자격 판매 유경험자(초보자도 가능) 소자본·고소득(무점포 가능)

문의전화 (02)649-1781, 645-8180

명회사성기업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513-21 회원빌딩 301호 TEL. (02) 649-1781(대)/FAX (02) 645-8180